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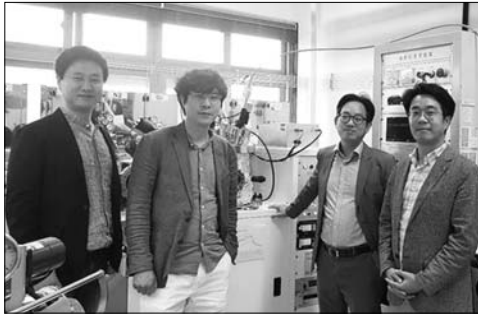
#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선정

### 군산대 연구진, 전북지역 물리학 분야에서 최초 2014년 부터 다양한 분야... 우수한 집단연구진

군산대학교 물리학과 연구진이 전북지역 물리학 분야에서는 최초로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우수한 집단연구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본 사업에 선정된 것은 전북지역에서는 군산대학교 물리학과 연구진이 최초이다.

특히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물리(심화형) 분야에 선정돼 학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업 선정과 함께 군산대학교 물리학과 이기문 교수, 양정영 교수, 김지완 교수, 김봉재 교수로 구성된 '강상관계 원리 전자소재/소자 기초연구실'

연구진은 강상관계라는 물리현상을 이용하여 기존에 구현이 힘들었던 새로운 p형 투명 전도성 소재를 발굴하고, 기초 물리와 더불어 응용 소자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전산모사계산 물리, 재료설계/합성 물리, 초고속레이저응역학 재료 분석 물리, 박막화/소자화 응용 물리 전문가로 구성된 본 연구진은 원천 소재 물리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군산대 물리학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 첨단 소재 관련 고급인재 육성 기반을 일궈나가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군산대학교 물리학과는 기존 대학에서 대학원 입학 후에도 경험할 수 있는 연구과제 참여 기회를 학부 때부터 제공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통해 전문 역량을 심화할 수 있는 첨단 연구중심 과정을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지역 내 기업과 단체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 군산시, 이웃사랑 '풍성'

### 기업·단체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이웃에 나눔 손길

군산시 지역 내 기업과 단체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주)금강피씨(대표 서상준)가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서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금강피씨는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서상준 대표는 "코로나로 전국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 작은 정성이지만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원장 강길원)에서 청소년 및 관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800만원 상당 화강품 5종 세트 100개를 후원했다.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법'을 기본으로 지난 2017년 7월 설립해 생활·교통·재난·범죄예방·보건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통한 전 국민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온정어린 손길의 도움을 주신 (주)금강피씨와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에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도 군산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청소년시설 및 저소득 세대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시, '다이노 키즈월드' 7월 개장

익산시가 어린이들을 위한 '다이노 키즈월드'를 마련해 오는 7월 개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 위치한 화석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실내 놀이체험 시설인 다이노 키즈월드를 마련했다.

시는 총 14억3000만원을 투입해 905㎡ 규모의 부지를 활용, 어린이 복합놀이시설을 조성했다.

이 시설에는 공중모험시설 스카이 트레일, 암벽등반시설 아트 클라이밍, 전자총을 이용한 서바이벌게임 레이저테그, 트램폴린 점프 등이 설치됐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오는 7월부터 개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이노 키즈월드' 명칭은 지난 3월~4



월 진행된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이 시설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주요 이용 대상이며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재훈 기자

## 익산시, 코로나19 불안감 해소 심리지원 서비스

### 코로나 자가격리자·정신건강 고위험군... 선제적 심리지원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대응인력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10월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로 시민들의 심리적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심신 안정 마음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음건강책과 아로마 키트, 마음챙김 동영상 등을 연중 제공한다.

심리 치유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상담 전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울 선별검사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연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완치자를 위해 선제적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격리해제 후 일상과 사회로 복귀하는 완치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가 안내하고 심층 상담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지친 의료진과 대응 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 다스리기 명상과 원예, 다도요법 등으로 구성된 마음돌봄 집단프로그램을 운영 참여해 주기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코로나 불무를 겪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도 살핀다.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팀과 청소년안전망팀, 학교밖청소년지원팀 등으로 나눠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구형양배추 품질 평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양배추 소비트렌드 변화로 꼬꼬마양배추 등 작은 크기의 양배추 소비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소구형양배추를 재배,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소구형양배추 시식평가회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핵가족화로 최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산 소구형양배추의 품질 평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소구형양배추를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시농업기술센터, 순천대

학교 GSP 원예종자사업단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유통회사, 육종회사 관계자와 농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평가회가 진행된 소구형양배추 전시회는 지난 4월 11일에 5개 품종을 정식해 60일 만에 수확이 이뤄졌으며 양배추의 구형, 크기 균일성, 색깔, 맛 등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군산의 대표 품종인 '꼬꼬마' 양배추는 아삭한 식감과 맛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추흰나비 등 해충 저항성은 약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케이볼'은 병해충과 열구 저항성, '스파클'은 구위향과 관택, '홀런'은 외엽이 작아 밀식재배가 가능하며 재포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군산=한영봉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